



사설

대학인다운 공명선거를  
—총학생회장선거에 즈음하여—

80년대의 첫 봄과 더불어 바람 세상은 온  
글면 대학에서 민주와 내지 자유의 열매가  
열매 되고 있다. 모처럼 만대 다시 열린 자  
유로운 학문의 불꽃이 활짝 피어날 줄을  
기쁘게 지켜나가고, 성행한 대학 생활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자지 장래의 화를  
가을에 넘겨서 봄과 가을의 화를  
가을에 넘겨서 봄과 가을의 화를

이와 함께, 우리 대학의 공명선거를  
있었던 학생회가 이제 봄, 여름, 가을  
비밀투표, 총학생회 선거에 의해  
총학생회, 총학생회 선거에 의해  
총학생회, 총학생회 선거에 의해

대학인의 선거는 대학인다운 선거  
비밀투표가 있어야 하는 바람 선거의  
결과가 나타난다. 대학인다운 선거  
결과가 나타난다. 대학인다운 선거

선거인권취득에서는 총 45세에 달하는  
대학인의 선거권과 선거권자를  
대학인의 선거권과 선거권자를  
대학인의 선거권과 선거권자를

대학인의 선거는 대학인다운 선거  
비밀투표가 있어야 하는 바람 선거의  
결과가 나타난다. 대학인다운 선거  
결과가 나타난다. 대학인다운 선거

사회학과 사회구조

I. 사회학과  
개방적제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학과는  
개방적제이다. 사회학과는  
개방적제이다. 사회학과는  
개방적제이다. 사회학과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과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학과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학과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학과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인간을 인간으로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과학의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페쇄사회의 허위역사, 「사회학의 폭로」 용납못해  
결정론에서는 인간을 종속 변수로서만 인정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인간은 역사의 피지배자이면서 주체자

Advertisement for a book or publication, featuring a portrait and text.

Advertisement for a book or publication, featuring a portrait and text.

Advertisement for a book or publication, featuring a portrait and text.

Advertisement for a book or publication, featuring a portrait and text.

Advertisement for a book or publication, featuring a portrait and text.

Large advertisement for 'Reader's Digest' (리더스 다이제스트) featuring a mountain scene and various promotional text.

할수없으나  
언마져도 하나  
한 감이 없지  
포수, 경영인  
인정하는 가  
한을 모레'하  
마련의 실마  
를 계속하게 되  
게 일시하설  
문제 일단락  
입니다. 해결안  
을를 현수론으  
인하여는 자  
입니다. 파국  
서는 앞에서  
나, 가진'조  
의문을 갖지  
이 상자 (者)  
자물 때 더욱  
누직인A회장

인하되었기 때  
는 것이다.  
적이고 타당한  
었다. 왜냐하면  
타협(?)으로  
복을 유지하게  
안이 많 그대  
있느냐 하는  
는 제기될 수  
재단의 문제는  
뜻한 재학  
의 혜택을받  
이는 애초의  
리, 오히려 정  
수라도 있다는  
는 바 그대로  
적인대안이 없  
공파의 인허부  
대안으로 ①기

이제만 문제의  
여간 나무 큰  
있기 때문이  
정당한 가치>

그 기간이  
이내거나  
알려지도  
장회들을  
전송 막내  
트 밭의 자  
1층 복도  
100원쯤  
평가를 쓴  
나 어떤  
1. 질제라  
는 시  
여름, 새  
1, 명물로  
도(茶道)

하

모완과  
초석 /  
위한  
US  
SH  
須 \*  
箸  
어 로  
파한  
作 /  
간증이  
부담을  
의 대학  
文解釈  
의 綜  
된다.  
5,000원  
54-4560

피고 싶은 것이다.  
 피도둑놈이 제 코코 달고  
 잃고 제게 빌먹도 많이  
 지라는 허세병도 많이  
 잃고 잃고 많이 쓰고,  
 이 성가러운 일이 끝날까

전일 전집장

진강민

학자야 생애는 더욱욱  
 끝자야 생애는 더욱욱  
 잃어 버린 사슴도 많이  
 제 동포들을 지고, 그  
 제 학자의 사슴도 마르  
 다와 비록 죽고 싶어사더라

의복학이 그런 것이다.  
 만다. 의복학이 기를  
 의복학이 신문에 써  
 면서지 모른다. 학자야  
 의복학이 저우준만 나는  
 의복학이 저우준만 나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는 것이다. 그러나 수록  
이 아닌 큰 바다에서

히 자리를 비  
고정 관념들은,  
위해 절대 휴

죽은 인간만이 남아 우  
는 다시 만난다. 고마웠  
분을 미안했던 분들, 학  
시절은 뿌리칠 수 없는  
의 영원한 벽 (壁) 인  
다. 이해했고, 이해했다.

<이란어과 · 4

▲삼일포 참고작업에서 '새' 공언.  
창작극연구회에서는 작  
이병도·의작품 '새'를 영  
언술로 삼일포 참고작  
마를 올린다.  
오는 8일부터 15일까  
하루 2회 (오후 4시, 7시  
공연.  
▲E. Albee 교 '사람을 매  
러서' 공연.  
본대학 연극반에서는  
인생현상을 걸한 24회  
기공연무에 '사람을 매  
러서'를 무대에 올린다.  
생화관 소극장 422호에서

에 공연된다 (4월 8일, 15일, 17일).

# 만평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도록  
國際그룹은 오늘 이 순간에도  
성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장의 뜻을 일각 의욕의 터를  
다진 기업30년  
조국의 성장과 호흡을 같이하며  
멋밋한 오늘, 자랑스런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시간  
에도 밤을 새워 일하고 있습니다.  
무역·제조·건설·운송·금융·증권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國際그룹은  
다부진 신념으로 세계 곳곳에  
그 성장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이 시간에도  
國際그룹은 세계속에 더욱 넓게  
크게 자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깨어 움직이고 있습니다.